

마을만들기 장소마케팅과 마을발전방안 수립에 스토리텔링활용 연구 - 제주도 용담1동 마을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황경수*, 양정철, 오윤정, 이관홍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torytelling in Town-making Area Marketing and Town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 Focusing on Storytelling of Jeju Yongdam 1-dong Town -

Kyung-Soo Hwang*, Jeong-Cheol Yang, Yun-Jung Oh, Gwan-Hong Le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용담1동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이야기를 토대로 씨앗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발전 전략 수립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도시재생을 피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용담 1동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을 소개할 때 소개지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각 중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향 수립, 프로그램 내용 구성할 때, 축제 등의 기획을 수립할 때, 지역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자료 등으로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마을을 이해시킬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의 분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nd propose a method for establishing a seed story regarding residents of Yongdam 1-dong and to utilize storytelling in establishing town development strategies. Globally, major cities seek urban restoration based on their regional culture and history. Yongdam 1-dong is a downtown area located in Jeju City, South Korea. This study attempts an innovative approach to town-making by storytelling about the residents' lives. The storytelling method may be utilized to establish town development plans in the following ways: 1) To make use of the storytelling method in the town to be introduced in various ways; 2) As an important reference in establishing town development plans; 3) To establish various town-making plans. For example, the method may be used to decide the direction, prepare program contents, plan related festivals, and conduct regional facilitator education programs; and 4) To help experts who participate in voluntary work in the region to understand the town. Using these contents, we can create one of various fields in town development.

Keywords : Storytelling, Town development strategy, town-making, Seed story, novel

1. 서론

본 연구는 용담1동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이

야기를 토대로 씨앗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발전전략 수립 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용담1동 새뜰 마을 사업 보고서와 2016년 문화로 만드는 마을이야기 보고서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2971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November 3, 2017

Revised (1st November 20, 2017, 2nd December 4,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세계의 주요도시들의 도시재생전략을 살펴보면 도시 경관을 살려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각각의 도시들은 근대유산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중점을 두며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정체성을 그 지역에 맞는 문화와 장소 마케팅을 통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냄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2000대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심환경을 정비하는 물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기존의 마을 만들기는 2007년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사례에서처럼 기초단체가 신청하고 사업도 행정이 주도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1]. 이를 통해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마을조형물 제작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어왔다.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용담 1동지역은 그동안 마을 만들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내성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는 마을주민 스스로 학습하고, 장소마케팅을 통해 마을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마을 만들기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소소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마을발전전략 수립 시에 어떻게 활용되지는 알아볼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이론적 고찰

장소마케팅은 기존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마케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지역주민(민간 주체를 포함한) 및 공공기관 등의 이미지 마케팅을 통하여 명소화 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장소마케팅이란 용어는 1980년대 유럽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마케팅이라는 문헌에서 등장하였고, 이는 영미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공업도시들의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산업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지방문화유산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접목

하여 민관합동으로 장소 관측과 관련한 마케팅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

장소마케팅은 지역주민의 내성적인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장소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과 연결 것이다. 도시공간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관광 공간을 제공하는 마케팅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스토리텔링의 정의

정창권(2008)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단어는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줄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스토리에 텔링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3] 즉 스토리텔링은 상호성과 같은 동태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정태적인 스토리에서 동태적인 이야기를 하다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이는 기존에 있는 정태적인 이야기인 설화, 사머니즘 문화, 역사적인 사실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첫째는 춤과 노래로 만들고, 둘째는 연극과 영화로 만들고, 셋째는 단편적인 역사문학으로 창조해 냄으로써 그 이야기를 상품화하는 것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토리는 생성방식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하는 기존형, 새로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 창조형, 문학,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접목시키는 활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2.3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소마케팅의 방법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특정 장소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과 관련된 기존의 스토리를 토대로 특정 장소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둘째,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공간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서사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청계천의 경우 조선시대 빈민가, 한국전쟁 직후의 판자촌, 60~70년대의 고가도로, 현재의 자연하천에 이르기까지의 그 변천 과정 자체가 서울의 역사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의 감성적 측면에 집중하여 전략으로서, 특정 행위자의 담화형태로 공간을 조성하거나, 방문자가 직접 화자가 되

어 사건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경우이다. [6]

2.4 이야기 북 프로젝트 : 생애사 스토리텔링

이야기 북 프로젝트이다. 지역주민의 사적이고 내밀한 삶과 생활 이야기를 서사인터뷰 방식으로 수집하여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생애사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1단계는 개인생애사를 들려줄 구술자를 찾고, 구술자로부터 생애사를 채록한 후, 전사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며, 2단계는 전사된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읽기 편한 생애사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책으로 출간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앞 단계의 작업과정과 성과를 활용하여 스토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7]

3. 선행연구

장소마케팅에서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의미는 그 마을의 주민들의 삶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역사는 도시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문화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장소마케팅은 학자들마다 도시(city)마케팅, 장소(place)마케팅, 지역(region)마케팅등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마케팅학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이하 AMA)는 ‘place(장소)marketing’으로 정의하고 있다. [8] [9] .

Kearns, G. & C. Philo [10] 에 의하면 장소마케팅은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들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라고 정의 있다.

Paddison, [11] 에 의하면 장소마케팅은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된 장소홍보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간과 행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Lee, [12] 은 장소마케팅을 설명하면서 Kearns와 Philo [10] 의 개념 인용을 통하여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기업가나 관광객 또는 주민들에게 장소가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장소(도시, 혹은 마을 등)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기업·주민·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제도·시설개발을 통하여 장소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Kim, [4] 은 스토리텔링의 개념에서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 결합된 합성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 현상으로 연구관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토리는 텍스트와 같은 정태성에 주목하고,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상호설과 같은 통태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연구의 대상이 정태적인 스토리에서 동태적인 이야기하기(Narrating)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라고 말하고 있다.

Choi, [5] 는 Ryu, [13] , Song, [14] 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라는 동사성 명사가 부가된 합성어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남들에게 표현·전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의사소통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속성이나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닌 사물이나 인물이 전해주는 의미를 화자가 의미를 부여하여 전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4. 생애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방법론 [7]

4.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소통의 문제와 직결되는, 소통을 위한 매개적 활동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기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기술이 된다. 스토리텔링은 지역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기획 사업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데서 활용된 스토리텔링을 ‘공동체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른다. 이 공동체 스토리텔링은 지역공동체의 구축과 강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스토리텔링을 말한다. 스토리텔링 작업 시에 이야기 자원의 확보와 생활 속 이야기판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2 스토리 자원 확보

지역문화공동체를 위한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자원은 첫째, 지역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주변에서 손쉽게 수집·발굴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서사적인 흥미와 재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은 지역의 마을지, 동지, 시군지, 도지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모으고, 그 이야기 위해 맥락과 즐거움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요소는 ① 메시지 ② 갈등 ③ 인물 ④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지, 동지, 시군지, 도지 등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 본 작업에서는 일부터 갈등을 드러내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행복하기까지의 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이야기로 만들고, 새로운 정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지명 유래 설화, 지역의 구비설화 등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문화와 지역민의 삶을 직간접으로 반영하는 지역성과 흥미로운 이야기성을 두루 갖추면서, 동시에 주변에서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자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개인생애사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사적 형식으로 구술된 개인생애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애에 대한 ‘실제 이야기’(real story)로서, 지역민의 삶과 생활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로서의 흥미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다.

4.3 연구 절차 및 타당성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생애사 인터뷰를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질문 자료를 발췌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그룹회의를 2015년 6월~8월에 5회를 걸쳐 진행을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의 도출된 생애사와 관련한 최종 문항인 사회·경제적 활동요인, 생애사, 가족사 등을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10월 ~ 12월까지 용담 1동 새뜰마을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시간은 마을주민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인터뷰는 1세대당 3회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생애사 분석을 위해서 06월부터 ~ 12월까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새벽시간대 15회, 오전시간대 15회, 오후시간대 20회, 출퇴근 시간대 15회, 저녁시간대 15회 총 8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리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마을 문화재 현장조사를 마을원로 및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 함께 3회 실시하였다.

용담1동 주민들의 그룹인터뷰는 2016년 8월 ~ 10월 까지 용담1동의 서문시장 상인회, 청소년기자단, 마을원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총 8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음악 공연 등이 병행되었다. 스토리텔링 결과를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그룹회의를 2016년 10월 ~ 12월에 2회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생애사 스토리텔링을 완성하였다.

5. 생애사 스토리텔링 작업

5.1 씨앗 스토리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용담1동 지역의 새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사 씨앗스토리를 정리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뜰마을지역의 거주민을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용담동 지역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룹면접 조사를 통하여 생애사 씨앗스토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 할 수 있었다.

Table 1. Major Cases of Lifetime Seed Stories

Classification	Dwelling Years	Summary of Cases
Case 1	40yea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About 70 years of age; living with the family Constant association with friends and relatives; highly satisfied with the residence. Keenly interested in welfare programs for the aged
Case 2	40yea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About 70 years of age; working as a wholesaler in an oil market (selling pickled cabbag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seriously superannuated but pleasant with the walls re-papered. With the family residing near the residential area. Going to the hospitals 4 times a week due to diabetic complications A resting place is required for the elderly.

Case 3	60yea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aking her living by her needle. 2. An elderly woman sick but happy because of her daughter living next door 3. Wishing to come out and stroll sometimes in the evening but unable to do that because there are few street lights. 4. Wishing to have some resting space where elderly people can talk cheerfully together.
Case 4	30yea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orking as a carpenter 2. The owner of that building; maintain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leasant. 3. Wishing to donate the talent of woodcraft.
Case 5	10yea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iving by joining farm work through an employment agency. 2. Going to the hospital for gallstones; wishing to stay there until he dies. 3. Wishing to have a place where he can exercise and talk friendly with friends. 4. Willing to join actively in works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leads him to.
Case 6	10yea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aking her living by her needle in the town; taking care of her elderly mother in the same house; living nearby relatives 2. Using an electric mattress instead of a boiler 3. No information on development projects around the residence. 4. In need of sports facilities and rest area

5.2 그룹인터뷰를 통한 마을스토리 분석

5.2.1 서문시장분들의 이야기

서문시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경제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지역이 제주 원도심 도시 재생 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상권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낙후되고 있다. 실제로 서문시장 2층 점포에는 반절이상은 빈 점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사람들을 일 자리를 찾아 나가서 여기는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5.2.2 용담1동 주민분들 이야기

예전에 노형동에서 살 때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유모차를 끌고 나가도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용담 1동으로 이사를 오고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웃이 생겼다. 지역공동체가 아직은 살아있어서 높은 주거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인원수가 작다보니 더욱더 반 친구들에 대한 교류와 아이들 부모님들과의 교류로 인하여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용담동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예를 들면 용두암

의 전설과 케가실의 전설 등이 지역주민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다.



Fig. 1. Group interviews with merchants and community groups

5.2.3 청소년 기자단과 간담회

마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합니다. 방과후 놀이를 위하여 학교벽면을 활용하여 거울을 부착하여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수영장, 도서관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방범활동을 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으로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학교를 나서서 집에 가는 동안 불을 켜주어서 안전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Fig. 2. Group interviews with young press corps and senior-citizen centers

5.2.4 용담1동 노인정 인터뷰

용담동은 교육문화의 중심지였다. 1950년대 오일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동산물이란 지역은 4.3사건 때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던 곳이다. 동네 어른들은 총소리가 나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한두기 바닷가에서 우리 자식들은 수영하고 소라도 잡고 했다. 그때는 정말 정신없었던 시

절이었지만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또 아이들 아프면 꼬시락 당에 가서 아기가 아프지 말도록 빌기도 했다. 거기 관리하는 신방이 용해서 아기를 데리고 많이 갔다. 예전에는 아프면 당을 믿고 심방을 믿는 것이 제일 좋았다. 1970년대는 공동수도가 있어서 갈웃하나 입고 물 길러 다니고 동산물, 진수물, 진수각 등지에서 빨래도 하면서 지냈다. 또한 어머니 들은 한두기에서 빨래방망이 소리 내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살아진다고 하면서 어두우면 빨래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전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은 마을이었다.

6. 생애사 스토리 및 그룹면접을 통한 스토리텔링 정리

생애사 자료를 토대로 용담동 마을속의 추억의 장소와 주민들의 생활상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소재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용담 1동의 역경극복의 정신이다. 용담1동은 제주도 최고의 역경 극복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제주도 최고의 경제권이었던 지역이 쇠퇴하여 최근에는 새뜰마을이라고 명명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지역 문화 연결되는 가족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

둘째는 여유와 여가의 교환이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매일 일만해서는 안 된다. 매일 공부만해서도 안 된다. 일 년에 한 두 번은 축제를 해서 여가를 만들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용담동은 이렇게 여가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용의 노닐던 지상 최고의 연못이 용연이다. 신선들이 놀던 곳, 귀향 오신 양반들이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 용연이다. 여가를 잘 보내고, 건설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여가를 잘 보내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곳 용담이다.

셋째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다. 용연도 있고, 공항도 가깝고, 시내버스 타기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입지적으로 제주도 최고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주거비용(집세, 전세)이 저렴하여 어르신이나 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어르신들은 양지공원(화장장)에 갈 때까지 이곳에 살고 싶다고 하신다. 어린이들에게도 서민들은 살기 좋은 곳이다. 신제주에 살 때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유모차를 끌고

나가도 외로운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용담동으로 이사 오니 동네가 작아서 서로를 알 수 있게 되어 큰 장점이 되었다고 한다. 서로 인사도 하고, 행선지를 묻는 제주 전통의 인사도 나눈다고 한다. 한천초에 한 개반이나 2개반 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친밀하게 지내고, 소통도 원활하다. 그래서 학생들은 밝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도도 높다고 한다.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용담이라는 마을을 좋아한다.

네 번째는 사랑·행복·만수무강을 비는 샤머니즘의 문화 마을의 용담동이다. 용담동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 건입동의 동자복과 용담마을의 서자복 미륵상(서복신미륵)의 이야기이다. 용담마을 사람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행복과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미륵신이 지키고 있다. 이 서자복이라고 하는 미륵신은 동쪽을 보고 서 있다. 건입동의 동자복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건입동의 동자복은 서쪽을 보고 있다. 서자복을 그리면서 서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기능을 맡는 역할을 부여한 것 같다.

다섯 번째는 제주 최고의 교육터전이다. 용담마을은 제주도 최고의 교육터전이다. 제주향교(제주유림들이 모여드는 제주향교, 수백 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용담의 세월을 묵묵히 이야기해주고 있다)가 대표적이다. 제주도 최고의 유림의 교육장소이다.

여섯 번째는 희망의 전설이다. 마을의 전설과 유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용담이다. 옛날 삼성혈 서북 해안에 큰 내(한내 : 대천, 한천)가 바다에 닿는 곳(용연, 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음)에 몇몇 가구가 모여 사는 한독(대독)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락이 형성되어 한내 동측에는 동한두기 서측은 서한두기라 불렸으며, 점차 가구 및 인구가 늘어나자 동·서 한두기를 통칭할 부락 이름의 필요성을 느끼자 용소(용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살려 용담이라 칭해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이다. 용두암은 용으로 승천하고자 하는 희망이 깃들여있다. 우리에게 용으로써 승천의 모습을 실제 보여주는 용두암의 기상을 보며, 용담 마을 주민들은 희망과 자긍심을 가져왔다.

일곱 번째는 치유의 샘과 염원을 비는 곳이다. 용담 마을에는 중요한 물이 몇 곳 있습니다. 한두기 치유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 용천수이다. 지금도 동한두기에 가면

바닷가에 치유의 용천수가 있다. 식수로도 활용하고, 여름에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면 이곳에서 치료도 했다.

여덟 번째는 사통팔달과 소통의 문화이다. 제주도 모든 교통이 연결되던 곳이다. 용담로타리의 제주차부는 서부지역 교통의 시점과 종점 역할을 해왔다. 제주서부 지역의 모든 경제활동의 시작은 서문통, 지금의 용담 마을부터 시작이었다.

7. 스토리텔링 활용

스토리텔링작업과 정리 후 마을홍보를 위한 소설 “용담동 20세기 소년”이라는 작품을 완성하였고, 마을발전 전략을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7.1 소설 “용담동 20세기 소년”

오랜 만에 이곳을 찾았다. 친숙한 좁은 골목길, 울퉁불퉁해서 더 익숙한 보도블록을 밟고 모퉁이를 두 번 돌면 이제 아버지만의 집이 된 예전의 <우리 집>이 나온다. 우리가 온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골목을 향해 나있는 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황 검색대의 스캐너처럼 훑어 보셨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검색에 걸려들 차례다. 아버지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신다. 마루가 집 가운데에 있어 창이 있는 방 말고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현재 시간보다 어두운 거실에 모두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어두운 거실은 익숙한 불편함으로 더 안정감이 느껴진다. 함께 온 아들 녀석은 오자마자 IPTV 리모컨을 찾는다. 할아버지와 얘기를 좀 나누고 봐도 될 것을 하며 눈치를 주지만 아들은 그게 뭐냐는 듯 TV를 켜다. 인터넷 케이블로 TV를 보는 시대, 빛보다 빠르다는 광인터넷이 이곳까지 들어오지만, 이곳은 <빠름>과는 거리가 먼 곳이다.

<그래, 요즘도 바쁘냐?>

<그저 그렇죠 뭐>하며 달라질 것 없는 거실 주변을 눈으로 훑어본다. 먼지가 앉은 전등, 원래 붉은 색이었던 꽃이 연한 갈색으로 바란 꽃무늬 벽지, 그리고 당당히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거실 장은 모든 시간을 간직한 비밀의 열쇠처럼 예전을 떠올리게 한다. 거실 장액자 위에서 두 번째 칸의 작은 액자들은 좀 더 선명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액자 속의 공간에선 건강한 부모

님과 아직 어린 내가 <소년>의 모습으로 방긋 웃고 있다.

서국민학교로 가려면 <동산물>을 올라가야한다. 소년이 오르기에 제법 가파른데 소년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 이곳엔 <도로코>가 있었다고 들었다. 동문통에서 시작한 도로코는 관덕정을 거쳐 이곳을 지나 멀리 한림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다. 한번은 아버지와 함께 이 언덕을 오르며 <도로코가 있었다면 이곳 동산물을 쉽게 오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자 <사람을 가득 태운 도로코는 힘이 없어서, 동산물에 오면 모든 사람이 내려서 도로코를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도로코는 안타는게 훨씬 좋을 거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한천을 건너자 서초등학교가 보인다. 그곳에서 조금 가면 제주대학교도 보이는데 대학 건물은 일반 건축물처럼 네모 반듯하지 않고 각 층으로 이어지는 원형의 계단과 전체적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건물을 소년은 좋아했다. 그리고 꼭 제주대학교에 가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소년의 형처럼, 대학생인 소년의 형은 제주대학교에 다닌다. 제주대학교는 ‘정드르’에 있었는데 이곳은 바다가 보이는 넓은 벌판이었다. 이 자리는 제주대학교가 생기기 전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안창남이라는 조선 최초의 조종사가 이곳에 비행기를 착륙시켜서 많은 성내의 사람들이 이곳까지 구경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할때면 꼭 “처다보아라 안창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 자전거~”이런 노래를 함께 불러주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용연에 놀러간다. 얼마 전 구름다리가 생겼는데 다리의 출렁거림이 재미있어 놀이기구처럼 소년은 그곳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구름다리 가운데에서 침을 뱉어 침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다. 중학생 형들은 구름다리 가운데에서 용연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년은 무서워 시도해 본 적은 없다. 용연 주위의 절벽에는 많은 글들이 돌에 새겨져 있는데 관심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바로 위에 있는 고시락당에 관심이 더 많았다. 어른들은 그곳에서 굿을 하거나 기도를 하러 가기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어 관심이 많았고, 우리들은 운이 좋으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곳에서 동전을 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확인하곤 했다.

저녁밥 때 까지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과 함께 용두암까지 달려간다. 해 질녘 용두암의 모습은 소년이 보기에 도 아름답다. 예전에 형과 함께 용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수학여행 오는 많은 사람들도 용두암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곤 했는데 소년은 용두암에 <용>이 정말로 있다면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용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용두암에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던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을 것이다. 용두암은 하늘에 오르려던 용이 오르지 못하고 굳어져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오르려다 발목 잡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곳에 발전이 없다 하는 어른도 계시지만, 소년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함께 지내고 싶은 이해심 많고 마음씨 고운 <용>이 일부러 남은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엔 크게 아프거나 큰 <홍>이 한 번도 없었다.

잠시 옛날 생각에 빠져 있을 때 TV를 보던 아들 녀석이 이곳 용담엔 뭐가 유명한지 물어본다. 갑작스런 질문이라 언뜻 답을 못해줬다. 현재 유명한 게 이곳에 뭐가 있을까? 먼저 떠오르는 건 건입동에 위치한 <동자복>과 마주보고 있는 <서자복>이다. 한두기 입구에 있는 서자복과 동자복은 동서로 마주하여 <구도심>을 지키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 동자복과 서자복을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 바라며 그리워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지금의 구름다리에 채워져 있는 열쇠못치보다 더 단단하고 더 오래 갈 사랑이 될 것이다. 아들 녀석이 더 크게 되면 이곳에 와서 여자 친구와의 사랑을 기원할지도 모른다.

나는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형동으로 이사 갔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계신다. 골목이 좋고 옆집 사람이 좋단다. 생활의 불편함 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버지께 더 중요한 것이다. 나 역시 가끔씩 이곳에 올 때마다 이곳이 더 좋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좋을 것 하나 없었던 좁은 골목, 오래된 가옥,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곳은 낙후된 게 아니라 보석이 되어 있었다.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반짝 반짝 빛나는. 더없이 소중한 보석임에 틀림없다. 이 보석이 나에겐 자랑거리인 듯하다.

7.2 마을 발전계획 전략 기초자료 제안

지역주민들의 씨앗스토리 및 그룹 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자연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용담동 마을 발전방안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늘공원 만들기 이다. 한두기로 내려가는 길과 용연으로 향하는 길 교차로, 펌프장 서측에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용연지역과 서자복이 있는 지역을 잇는 하늘공원 만들기 이다.

둘째는 서문시장, 제주향교, 용연, 용두암 등 주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공급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각 시설 주변의 주차문제를 파악하여 공유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예술성을 가미한 주차장을 공급한다. 주차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술성이 담보된 건물이 되도록 한다.

셋째는 용담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담동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인구의 유입을 위한 학교와 문화시설 등을 유치한다. 빈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레지던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 때 레지던스 사업은 예술가들이 리모델링한 곳에 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넷째는 동자복과 서자복의 사랑과 행복, 장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화하여 공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공모한 이야기는 책자를 만들어서 서문통, 용담의 사랑의 메시지로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담은 사랑의 메카가 되는 것이다. 동자복과 서자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화책, 뮤지컬, 성악, 가요 등을 해마다 만들고 공연하도록 하며, 이를 축제화 한다.

다섯째는 지역 내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노인정, 가능하면 개인 주택에 2명이 1인조가 되어 이야기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한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봉사점수를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교육청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하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여섯 번째는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 구축이다. 주민자치센터와 노인정, 경로당 등에 조손(祖孫,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즉,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 만들어 날리기, 폭죽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그림 그리기, 한글 가르쳐 드리 기, 한자 배우기, 영어 가르쳐 드리기, 이야기 책 읽어 드리 기, 맛있는 옛 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마을유산 지키미 운동이다. 유산을 지키 고, 의미를 부여하고, 전통과 예술미를 가미해서 복원하 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사라진 유산의 경우는 그 자리 에 비문을 새겨두어 후손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한다. 마을 유산으로 등재되거나 관리되는 곳에서는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용담1동 축제 기간에 개최하는 것 도 방법이다.

8. 결론

본 연구는 용담 1동의 마을소개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스토리텔링작업에 목적이 있었다.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구성, 방법론을 살펴보고 개별면접, 그룹면접 등을 통해서 씨앗 스토리를 만들었다. 연구진이 직접 투입되어 친화적이 되기 위하여 공연을 하고, 토론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 공연과 간식 제공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노인회의 임원진분들에게까지 많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하였다.

결과물은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소개를 위한 내용과 바람을 소설의 구성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이는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마을 만들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결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연구가 다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마을을 소개할 때 소개지에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마을 만들기 와 관련 미래의 방향 설정,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할 때, 마을축제 등의 기획을 수립할 때, 지역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전문 가들에게 마을을 이해시킬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생애사 스토리는 용담 1

동 지역의 청소년이 제작한 마을신문을 통해서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병행 하여 마을시장의 상권과 마을관광지와 관광안내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홍보가 진행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마을 만들기의 전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의 분야를 만들어 낼 수는 있다. 이와 별개로 지역의 고유문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ae-Hyuk Yang,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Promotion Progress in Neighbourhood-Making Project - Focused on the Busan Sansong Villag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2, no.10, pp. 41-48, 2010
- [2] Dong-Hoe Koo, Place Marketing as an Urban Cultural Strategy and Quality of Lif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pp. 215-226, 2004.
- [3] Hyun-Suk Min,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Old Roads by Storytelling, vol. 26, no. 2, pp. 205-212, 2010.
- [4] Kwang-Wook Kim, The research on the conception of storytelling, vol. 41, pp. 249-276, 2008
- [5] In-Ho Choi, Eun Mi Lim, Research Articles : The place Marketing using Storytelling: An Exploratory Research, vol. 32, no.4, pp. 411-429, 2008
- [6] Woo-Ik Yoo, The New Direction of Rural Development in The Era of Localization, *Journal of geography*, vol. 26, pp. 19-33, 1995.
- [7] Now-Hyun Jang, Life History Storytelling and Local Culture Community,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 Culture*, vol. 44, pp. 353-374, 2011.
- [8] Leo van den Berg, & Erik Braun., Urban Competitiveness, Marketing and the Need for Organising Capacity. *Urban Studies*, vol. 36, no. 5-6, pp. 987-999, 1999. DOI: <https://doi.org/10.1080/0042098993312>
- [9] Cheol Hyun Jeong, Success Strategies of Urban Cultural Marketing, 2011.
- [10] Kearns, G. & C. Philo(1993), Culture, history, capital :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selling, Kearns & Philo(eds.). *Selling Places :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and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 [11] Paddison, R., City Marketing, Image Reconstruction an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 30, no. 2, 1993. DOI: <https://doi.org/10.1080/00420989320080331>
- [12] Soo Bum Lee, The Place Marketing Strategy for promoting City Image: A Case Study of Incheon, vol. 1, no.12, pp. 56-83, 2004.
- [13] Soo-Yeol Ryu, Ji-Eun Yoo, Su-ra Lee, Yong-ok Lee,

Mi-Young Jang, Kyung-Mi Joo,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2007.

[14] Jung-Ran Song, Understand and practice storytelling, Seoul Literature Academy, 2006.

황 경 수(Kyung-Soo Hwa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 박사)
- 2004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7년 11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

양 정 철(Jeong-Cheol Yang) [정회원]



- 2015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
- 2015년 11월 ~ 현재 : 세계환경과 삼연구소 특별연구원
- 2017년 5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015년 9월 ~ 현재 : 세계심학회 연구위원

- 2017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요트&크루즈, 워터프론트, 해양관광, 마을만들기

오 윤 정(Yun-Jung Oh) [정회원]



- 2013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
- 2015년 10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2016년 12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 2017년 6월 ~ 현재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전문연구위원

<관심분야>

지역사회복지, 마을만들기, 사회공헌사업, 양성평등정책

이 관 홍(Gwan-Hong Lee) [준회원]



- 2017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자치 석사)
- 2017년 10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문화행정